

반짝 아이디어 - 바퀴달린 절각침대 “꽃사슴 안전절각 문제없어요”

꽃사슴의 경우 절각을 위해 마취제를 주사한 후 대개는 5~7분 정도에 쓰러진다. 그런데 쓰러지기 전까지 놀란 사슴은 사슴장을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가 아무 곳이나 덩석 쓰러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꽃사슴에는 아직도 대부분 ‘씩시콜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녹혈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깨끗하고 평평한 자리로 사슴을 들어 옮기려면 아무리 꽃사슴이라지만 만만치가 않다. 축 늘어진 다리를 잡고 녹혈이 다치지 않도록 받치려면 서너명이 달려들어 애쓰지 않으면 안된다.

경기도 광주 초월사슴농장(대표 이종필)은 꽃사슴 전용 절각침대를 사용하셔서 간단히 작업을 마무리한다. 나무판과 가늘은 파이프를 이용해 제작한 이 절각침대는 네귀통이에 바퀴를 달아 사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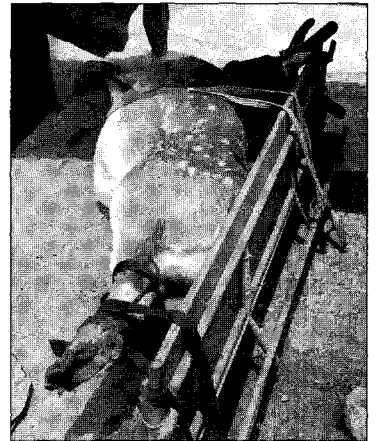
▲ 절각침대를 이용해 꽃사슴 절각을 하고 있는 이종필 사장. 머리를 침대 밖으로 두어 녹혈받기에 용이하다. 불결한 축사 바닥이 아닌 깨끗한 침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보기 좋다.

편리한 자리(그늘이나 지정된 절각장)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 몸통과 다리를 안전하게 보정할 수 있고 사슴의 머리를 침대 머리맡으로 내어놓아 녹혈을 받기에도 편리하게 되어 있다.

초월사슴농장은 쓰러진 사슴을 절각침대에 보정시켜 고객들이 사슴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녹혈을 마실 수 있도록 이중 출입문 사이에서 절각을 한다. 물론 그늘이 지도록 되어 있어 사슴의 안전에도 좋다. 절각이 끝나면 다시

안전히 깨어날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가 침대의 한쪽을 약간 들어 쉽게 내려놓는다.

이 간단한 절각침대는 사슴의 안전과 절각 및 채혈작업의 편의성, 고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작업과정을 보여줌으로 만족을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반복되는 작업과정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불편함도 잘 응용하면 쓰임직한 신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할만한 일이다. **민국양특**



▲ 사슴장 이중문 사이에 있는 그늘 아래서 작업을 진행. 더 좋은 그늘이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몸통과 다리를 보정할 수 있어 한층 안정감을 준다. 침대의 한쪽은 나무판을 세워 보정이 용이하도록 한다. 웬만한 치료도 가능해 보인다.